



세창스틸, 정읍 장명동에 성금 700만원 기탁

정읍시 제2공단에 소재한 강관 제조업체 (주)세창스틸(대표 이재선)은 23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장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주)세창스틸은 12년째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면서 이웃사랑을 봄소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재선 대표는 “직원들과 회사가 십시일반 모든 정성으로 취약계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양면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영희 동장은 “이웃사람을 실천해 주신 세창스틸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장명동에서도 소외계층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명동주민센터, 북부노인복지관, 정읍애육원, 자애원, 정읍가정상담센터 5개소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진안 주천면 고영성씨, 장학금 100만원 기탁

진안군 주천면 주민 고영성씨는 지난 22일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연초방문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영성 씨는 “지역인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진안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해마다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뜻을 늘 명심하며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성씨는 2021년도부터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주천면 구암미을의 노인회장 및 이장을 역임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전북대 수의대, 수의사 국가시험 100% 합격

올해 졸업예정자 49명 전원 합격… 박성현 학생 전국 수석 겹경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은 제68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률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박성현(사진) 학생이 전국 수석을 차지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수의대는 올해 졸업예정자 49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2019년 전국 수석을 배출한 바 있는 수의대는 올해 또다시 전국 수석을 배출하며 국내 최고의 수의사 양성 요람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처럼 매년 전북대 수의대가 국가시험에서 전국적으



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교수진의 열정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이 맞물려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은 박성현 학생은 “전북대 수의대 전 과정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점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6년 동안 수준 높은 교육과 많은 경험을 제공해 준 교수님들과 함께 시험을 준비한 동기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상열 학장은 “100% 합격률은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교육과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수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아영면 의용소방대, 마을 경로당에 라면 기부

남원시 아영면은 아영면 남여의용소방대가 지난 22일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경로당에 라면 26박스(환가액 65만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해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과 리면, 김장김치 등을 기부하여 지역 주민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류홍수 대장은 “의용소방대의 작은 나눔 실천이 설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산면 의용소방대, 취약계층에 라면·휴지 전달

남원시 대산면 남·여 의용소방대(대장 최양호, 고계임)에서는 23일 라면 및 휴지 50세트(환가액 100만원)를 관내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면서 취약계층 및 독거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대산면 의용소방대는 매년 겨울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장은 “추운 겨울 관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교월동 소산마을 최정복 통장, 성금 2000만원 쾌척

김제시 교월동(동장 강옥규) 행정복지센터는 소산마을 통장 최정복씨가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소산마을 통장, 전북아너소사이어티 44호, 김제시 3호 회원으로 활동 중인 최정복씨는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정기적인 기부를 이어오고 있어 지역 내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화재 피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2백만원, 정화암선생 생가보존회에 1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마음을 주민 위해 앞장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최 통장은 “행정의 도움이 달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돋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보다 더 따뜻해진다면 더 바랄게 없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옥규 교월동장은 “우리 동 복지사각지대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나눔을 베풀어 주어 감사드린다”며 “그 마음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수성동 산악회, 안전기원 시산제 개최

정읍시 수성동 산악회(회장 김용성)는 최근 회원 20여명과 함께 내장산 동학기념탑에서 시산제를 개최했다.

이날 시산제는 산악회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문 낭독과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는 음

복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성 회장은 “비가 오는 낮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올 한해 우리 회원들이 더욱 단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산악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010-9845-411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신지사 858-9923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